

횡성군「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 지원사업」 본격 시행

이번 사업은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교 밖 청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진로·취미·문화·체육 활동 등 청소년의 일상 성장을 필요한 영역을 바우처 카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보편적 청소년 복지 정책이다.

횡성군은 2026년 1월부터 매월 바우처 카드를 통해 초등학생은 월 3만 원, 중학생은 월 5만 원, 고등학생은 월 7만 원을 지원하며, 향후 단계적으로 초등학생 월 5만 원, 중·고등학생 월 10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약 3,200명 규모로, 소득과 관계 없이 연령과 주소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는 서점·문구점, 예능·체육시설, 문화시설, 생활밀착 업종 등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자기계발, 여가 활동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관내 가맹점 중심으로 운영해 청소년의 일상 성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바우처 신청률은 81%로 집계되며, 사업초기부터 높은 참여율과 호응을 보이고 있다.

박은정 가족복지과장은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아이 한 명 한 명의 선택과 가능성을 지역이 함께 응원하는 정책”이라며 “청소년들이 지역 안에서 안전하게 배우고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완·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사업이 청소년들이 머물고 싶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교육·복지 도시 횡성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릉시립도서관, 시민

중심 자식 서비스로 도약

강릉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중 AI기반 누리집 재구축과 회선동 스마트도서관 신규 설치를 추진한다.

AI를 기반으로 한 누리집 재구축은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자의 검색 패턴과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화 접근성 강화, 직관적인 화면 구성, 모바일, 온라인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다. 이번 재구축을 통해 이용자들이 도서 검색 및 예약,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 신청 등 주요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5월경 회선동에 신규 설치할 스마트도서관은 타 도서관 도서 예약 서비스를 포함한 무인 대출·반납 시스템을 갖춘 도서관으로, 24시간 운영을 통해 시간 제약 없이 도서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강릉시립도서관은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와 시민 중심의 독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AI 기술은 도서관 서비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누리집 재구축과 스마트도서관 설치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서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CES 2026 '통합강원관' 개관

원팀 강원, 역대 최대 규모로 글로벌 시장 본격 공략



강원특별자치도의 혁신 기술이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 2026'의 중심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현지 시간 1월 6일 오후 2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통합강원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도내 유망 혁신기업 19개 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 개관식에는 심원섭 道 산업국장을 비롯해 이주연 기업호민관, 원

주시 최미옥 의원, 미국 페어팩스 카운티 경제개발청 Victor Hoskins 청장 등 주요 내빈과 참가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통합강원관은 단순한 참가를 넘어 강원 산업의 성장세를 숫자로 입증했다.

전년 대비 참가 기업(10개 사) 수는 90% 늘어난 19개 사로 확대됐으며, 예산은 100%(5억→10억 원), 전시 면적은 67%(33평→56평)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조성됐다.

특히, 개관식 현장에서는 CES 혁신상을 거머쥔 ▲스마트이엔씨(춘천) ▲에프디테크(원주) ▲솔루션소재(강릉)에 대한 혁신상 명패 전달식이 진행되어, 강원의 기술이 곧 세계의 기준임을 대내외에 알렸다.

이번 전시의 핵심 전략은 '통합'이다. 과거 3개 전시관으로 분산 운영되던 방식을 탈피해, 올해는 도내 9개 지원기관과 19개 기업이 하나의 '통합 강원관'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강원(GANGWON)'이라는 지역 브랜드를 글로벌 바이어와 투자자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기업 간 협업과 상담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도(道)는 이번 CES를 계기로 미국 동부 핵심 비즈니스 거점인 페어팩스 카운티 경제개발청과의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한다.

워싱턴 DC, 인근의 첨단기술·산업 중심지인 페어팩스 카운티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도내 기업들에게 현지 투자 정보 제공은 물론 북미 시장 정착을 위한 단계별 후속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화천에서 내집 마련 쉬워진다, 주택 대출이자 절반까지 지원

화천군, 지역 2년 이상 거주 군민 대상 주택구입 융자금 이자 지원

기준증위소득 150% 이하 군민, 신축이나 매입 위한 금융부담 경감



화천군민들의 내집 마련이 한결 쉬워진다.

화천군은 지난 7일 '화천군 내 집 마련 융자금 이자보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이 사업은 화천군 지역 금융기관에서 주택 신축이나 매입 자금대출을 준비 중인 군민들에게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해당 사업을 취급하는 지역 금융기관은 NH농협군지부, 화천농협, 간동

농협, 춘천·철원농협 화천지점, 군산 립조합, 강원다누리신협, 다창새마을금고, 화천새마을금고 등이다.

선정된 군민에게는 주택 신축이나 매입에 소요된 금액 중 최대 2억원에 대한 발생이자 50%까지, 최대 연간 600만원이 지원된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24개월 이상 실거주 중인 군민이다.

군이 조성한 택지에 주택을 신축할

경우 거주기한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소득 인정액이 2025년 기준 증위소득 150% 이하인 주민이 화천군 소재 연면적 100㎡ 이하 단독주택 신축 또는 매입,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을 매입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면, 체납자나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유사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군청 민원봉사실 주택부서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화천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화천군은 주택구입에 따른 금융부담 경감 이외에도 신혼부부 일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립, 택지조성 등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화대에 나서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주택보급을 통해 군민 삶의 질 개선 뿐 아니라, 교육 지원과 돌봄까지 결합된 최고의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민석 기자

겨울 축제, 제17회 평창송어축제 개막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겨울 관광 축제인 2026년 제17회 평창송어축제가 1월 9일(금)부터 2월 9일(월), 32일간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장에는 송어낚시 외에도 다양한 겨울 놀이시설이 운영된다. 눈썰매, 스노우래프팅, 아르고 얼음자전거, 전통썰매, 얼음 카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겨울 레포츠와 체험 콘텐츠가 마련돼 가족 단위 관광객과 젊은 층 모두에게 즐거움을 제공한다.

축제장 내 회센터와 구이터에서는 관광객이 직접 잡은 송어를 송어회, 송어구이, 배운탕, 회덮밥, 회무침 등으로 바로 맛볼 수 있으며, 어묵탕, 가리국수, 떡볶이, 라면 등 겨울철 인기 간식과 지역 토속 음식도 다양하게 판매된다.

2026년 축제에서도 대표 프로그램인 송어 얼음낚시와 맨손 송어 잡기 체험이 운영된다. 꽁꽁 언 오대천 얼음 위에서 즐기는 얼음낚시는 겨울 축제의 묘미를 선사하며, 수십 50센티미터의 천물에서 직접 송어를 잡는 맨손 송어 잡기는 축제의 대표 인기 프로그램이다.

김민석 기자

동해시, 2026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회

동해시가 1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 간 시청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의 마무리를 앞두고 그간 준비한 계획을 최종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보고회의 방향은 한 가지로 모아진다.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심규언 시장은 보고회에서 무엇보다도 시민 체감형 성과와 실질적인 행정을 강조하며,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고,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마무리해야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번 보고회는 단순히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추진의 지역 요인과 해결 방안, 부서 간 협업 과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중앙부처 업무보고 내용과 국정 기조를 세밀히 분석해, 지역과 연계된 주요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라”며 실제 실행력을 거듭 강조했다.

동해시는 민선 8기의 마지막 해를 맞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현재 준비 중인 다양한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춘천시 계약심사로 예산 22억원 절감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22억 1,700만 원을 절감했다.

계약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사업을 대상으로 입찰과 계약 체결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제도다. 사업 추진 전 단계에서 사업 규모와 공정, 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다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계약심사는 총 247건으로, 심사 대상 사업 규모는 686억 원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공사 분야 106건에서 18억 9,000만 원, △용역 분야 28건에서 2억 8,100만 원 △물품 구매 분야 113건에

서 4,6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번 성과는 관련 법령과 원가 산정 기준에 따라 현장 여건과 사업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량과 공정의 적정성을 사전에 점검한 결과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요소는 조정하되, 사업 목적과 품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춘천시는 무조건적인 예산 산정이 아닌 사업부서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현장에 적합한 적정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심사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부실 요인을 사전에 보완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 운영에 주력했다.

김민석 기자

열린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의회

열린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의회



금천구의회

2025년 한해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금천구의회가 되겠습니다.
- 금천구의회 의원 일동 -

